

## 瘀血에 關한 文獻的 考察

金 暎 鎰\*  
康 舜 洙\*\*

〈目次〉

- I. 緒 論
- II. 研究資料 및 方法
- III. 本 論
- IV. 考 察
- V. 結 論

### V. 緒 論

瘀血은 疾病을 誘發하는 要人으로서 看做되어지는 韓醫學에 있어서의 獨特한 概念으로 이는 오래전 부터 韓醫學의 疾病治療에 別理의 概念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그에 따른 적지않은 物的 治方들이 形成되어 왔다.

韓醫學에서 瘀血은 金櫃要略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이후 많은 文獻에서 瘀血의 言及이 되어왔으며 清代에 들어와서 具體的인 理論이 確立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瘀血이란 基本的으로 鬱血狀態에 相當하지만 微小循環障害, 血液레올로지의 異常이나 流體力學的異常, 組織안에서의 血液貯溜, 組織의 增殖 또는 變性等이 關聯된다.<sup>16)</sup>

血滯라고도 불리는 瘀血은 病理的인 產物로 생각되며 外傷, 炎症, 手術, 出産, 月經異常, 自律神經失調, 免疫異常, 心血管系異常, 寒冷

등 各種原因으로 發生하며 이것이 새로운 原因이 되어 여러疾病을 發生시키기 때문에 瘀血이 關聯되는 病態는 대단히 많고 또 瘀血을 改善함으로써 많은 질병을 緩解 시키는 것이 可能해진다.<sup>16,18,19,21)</sup>

오늘 西洋醫學에서 많은 關心을 가지는 疾病들中 循環不全으로 因한 疾患이 瘀血과 有關하며 近來에는 中國 및 日本等地에서도 瘀血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中國에서는 “活血化瘀 專門團體”에 依하여 腦血管, 心臟, 四肢 等の 血管性疾患, 炎症性疾患, 內科疾患, 精神科疾患, 骨關節疾患, 等 많은 分野에서 瘀血에 對한 臨床應用과 有效性이 높이 評價되고 있다.<sup>18, 19)</sup>

따라서 瘀血에 關한 올바른 方向設定과 理解를 爲하여 二十二種의 韓醫學 文獻을 調査 整理하여 考察해 보고져 한다.

\*圓光大學校 韓醫大 大學院

\*\*圓光大 韓醫大 方劑學 教授

## II. 研究資料 및 調查方法

### i) 研究資料

研究資料는 皇帝內經 및 傷寒論, 金櫃要略을 비롯하여 曆代重要 醫書로 부터 現代의 韓國, 中國, 臺灣, 日本書籍 및 關係論文에 이르기까지 古典 및 現代 文獻 등 總 二十二種으로 하였다.

- 1) 黃帝內經類析: 梁遠通
- 2) 傷寒論: 張仲景
- 3) 金櫃要略: 張仲景
- 4) 類證治裁: 林風琴
- 5) 韓方臨床入門: 崔虎錫外
- 6) 醫學入門: 李 澁
- 7) 韓方臨床學(辨證施治): 蔡仁植
- 8) 韓方消化器內科學: 李起男外
- 9) 黃氏醫書八種: 黃元御
- 10) 東醫學辭典: 金동일外
- 11) 東醫寶鑑: 許 浚
- 12) 辨證奇聞: 錢鏡湖
- 13) 韓方祕錄: 李璟模
- 14) 臟腑辨證論治: 金完熙外
- 15) 東洋醫學大辭典: 謝 觀
- 16) 天真處方解說: 李常仁外
- 17) 活血化瘀療法臨床實踐: 顏德성
- 18) 韓醫學에서의 瘀血에 관한 概念  
(方劑學會誌 創刊號): 康舜洙
- 19) 活血祛瘀劑에 관한 文獻的 考察  
(方劑學會誌 第二號): 姜惠永外
- 20) 韓方對疑難症之治療: 許鴻源
- 21) 血證論: 唐容川  
醫林改錯: 王清任

### ii) 調查方法

研究資料를 中心으로 血症, 血瘀, 瘀血條,

血門, 등 의 部分에서 瘀血에 관한 概念, 原因, 症狀, 治法, 및 治方을 中心으로 分類 및 整理하였다.

## III. 本論

### 1. 黃帝內經

- \* 人有所墮墜 惡血留內 復中滿脹 不得前後 (素問 繆刺論)
- \* 絡外溢 即經有留血 (素問 調經論)
- \* 寒獨留 即血凝泣 (素問 調經論)
- \* 經脈流行不止 環周不休 寒氣入經而稽泣而不行 客于脈外側血少 客于脈中則氣不通 故卒然而痛 (素問 舉痛論) \* 旺臥
- \* 手少陰心氣絕則脈不通 脈不通則血不流 血不流則毛色不澤 攷其面黑如漆柴者 血先死 (靈樞 經脈)
- \* 黃帝曰: 其成的余何? 岐伯曰: 厥氣生 足惋惋生脛寒 脛寒則血脈凝澁 血脈凝澁則寒氣上入于腸胃 入于腸胃則臍脹則腸外之汁沫迫聚不得散日以成積. 卒然多食飲則腸滿 起居不節 用力過度 則絡脈傷 陽絡傷則血外溢 血外溢則衄血 陰絡傷則血內溢 血內溢則後血 腸胃則絡傷 則血溢于腸外 腸外有寒汁沫與血相搏 則并合凝聚不得散而積成矣 (靈樞 百病始生)
- 卒然外中于寒 若內傷于憤怒 則氣傷逆 氣上逆則六輸不通 溫氣不行 凝血蘊里 而不散 津液澁滲 著而不去 而積皆成矣 (靈樞百病始生)

### 2. 傷寒論

- \* 太陽病 身黃 脈沈結 少腹硬 小便不利者 無血也,

小便自利者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本方主之 (太陽)

\* 陽明證 其人喜忘 必有蓄血 所以然者 本有久於血 故令喜忘 屎雖硬 大便反易 其色必黑者 宜本方下之(陽明)

\* 病人 無表裏證 發熱八九日 雖脈浮數者 可下之 假令 已下 脈數下解 合熱則消 穀善飢至六七日 不大便者 有瘀血 宜抵當湯 若脈數不解 而下不止 必脇熱便膿血也(陽明)

3. 金櫃要略 \*

\* 病者如血狀 煩滿 口乾燥而渴 其脈反無熱 此為陰狀 是瘀血也 當下之 (瘀血)

\* 病人胸滿脣痰 舌青口燥 但欲漱水不欲嚥 無寒熱 脈微大來遲 腹不滿 而其人反言我滿 為有瘀血 (瘀血)

\* 治男子膀胱滿急 有瘀血(婦人雜病)

\* 問曰 婦人年五十所 病下利 數十日不止 暮則發熱 小腹裏急 腹滿 手掌煩熱 口脣乾燥 何也 帥曰 比病屬帶下 何以故 曾經半產 瘀血在小腹不去 何以知之其證 口脣乾燥 故知之 當以本方主之 (婦人雜病)

\* 帥曰 產婦腹痛 “法當以枳實芍藥散 不愈者” 此偽腹中有乾血著臍下 宜本方主之(產後)

4. 類證治裁

\* 凡跌撲傷損 及努力負重 忿怒氣逆 皆使瘀血停蓄 其證寒熱發黃 胸脇小腹滿痛 手足可近 宜分上中下治之 如吐衄停瘀屬上部 必漱水不慾然 血結胸隔屬中部 必燥渴譫語 小腹硬滿大便黑屬下部 必發狂善忘 三焦蓄血必狂躁便實 蓄血初期胸腹痛從

高墮下惡血留停腹脇痛不可忍 怒傷血滯 胸前血瘀 挾血如見崇狀 身寒熱發黃 脈弦細而伏 畜血下黑如漆最危 必神脈不變 方可治瘀血燥結頭面身體發黃 (畜血)

5. 漢方臨床入門

(血瘀)

\* 血瘀란 基本的으로 循環障害를 가리키고 具體的으로는

1) 微小循環의 障害: 血流의 緩慢化 또는 停滯, 血管內의 血素板, 血球의 凝集과 閉塞, 血管의 形態異常, 狹小 혹은 閉塞, 血管外로의 溢血, 出血 等.

2) 血液의 레오로지의 異常: 血液濃度의 增高, 血漿比粘度의 增大, 血液凝固能의 增大 等

3) 血液의 流體力學的 異常: 心驅血能의 減弱, 血管壁의 抵抗性의 增大 等

4) 外傷性, 炎症性의 出血 또는 組織에서 血液貯留, 혹은 骨盤內의 鬱血 等

5) 續發하는 炎症, 鬱血, 手腫, 糜爛, 壞死, 硬化, 細胞增殖變性, 血管透過性增大 等

\* 原因으로는 \*

外傷, 炎症, 高熱, 手術侵襲, 出產, 月經異常, 出血性 疾患, 免疫異常, 寒冷에 依한 血管收縮, 血管運動神經의 失調(氣滯), 心血管系의 疾患 等이다.

6. 醫學入門

\* 外集券一(血條)

瘀血因打撲傷損, 瘀聚胸隔者犀角地黄湯 桃仁承氣湯

\* 外集卷二

內傷外感及飲食傷, 房勞墜肉五臟有傷

血聚隔間從胃脘出者則爲嘔吐從鼻出血則爲衄，陽性身熱多渴，陰性身冷不渴然血陰也，身涼者易愈

7. 漢方臨床學(辨證施治) \*

\* 心絞痛症의 二類形에서心痛과 胸悶은 氣滯血瘀의 表現

8. 漢方消化器內科學

\* 嘔吐의 原因 中 하나가 瘀血  
瘀血吐 原因은 經中膿血時, 腥氣, 臊氣한 臭氣를 맡을때

9. 黃氏醫書八種

\* 血瘀

一 肝主臟血凡臟腑經絡之血皆肝家之所灌注也血以溫升爲性緣腎水在施則生肝血肝血方生而已拘陽魂故其性溫和而升散實則直升虛則退陷升則流暢陷則凝瘀蓋血中溫氣化火之本而溫氣之原則根於坎中之陽坎陽虛不能發生乙木溫氣衰損故木陷而血瘀久而失其華鮮是以紅變而紫紫變而黑本主五色凡肌膚枯目 자 青黑者 皆是肝血之瘀而肝血部升之原則在於脾脾土滯陷生氣陷抑故肝無上達之路肝脾不升原因陽衰陰旺多生下寒而溫氣抑鬱火胎淪陷往旺變而爲熱然熱在於肝而脾腎兩家則全是濕寒不可專用清潤至於溫氣 敗下熱不作者十之六七末可概論也

10. 東醫學辭典

\* 瘀血：(瘀血症, 血瘀) 피가 몸안에 一定한 곳에 머물러서 생기는 病症. 外部的 損傷, 經閉, 寒邪로 氣가

몰리거나 血熱等에 의해서 생긴다.

瘀血이 생긴 部位에 따라 各異한데 一般的으로 얼굴이 검으며 皮膚가 靑紫色이고 거칠어지며 甚한 아픔이 固定되어 있고 누르면 아파하며 때로는 紫朱色의 血腫이 있거나 아랫배가 뜬뜬하고 가슴과 양 옆구리가 아프며 月經이 멎고 大便이 검으며 혀는 暗紫色이거나 瘀血 斑點이 나타난다.

심하면 健忘症과 미쳐 날친다. 活血祛瘀하는 方法으로 治療한다.

피순환 특히 가는 핏줄에 循環障礙와 炎症性 反應(變性, 塊死, 萎縮性 增殖 等)에서 본다.

一 瘀血로 인한 各種 疾病 一  
瘀血經閉, 瘀血灌睛症, 瘀血頭痛, 瘀血流注, 瘀血發黃, 瘀血腹痛, 瘀血不妊, 瘀血崩漏, 瘀血疝, 瘀血腫, 瘀血證, 瘀血齒痛, 瘀血胎黃, 瘀血脇痛, 瘀血咳, 瘀血腰痛, 瘀血胃脘痛, 瘀血月經痛, 瘀血月經過少, 瘀血月經後期 等

11. 東醫寶鑑

\* 內經篇卷之二, 血

一 熱能傷血 一

血見熱則行見寒則凝

血得熱則 溢故鮮得寒則凝澁故瘀, 瘀者黑色也, 鮮者赤色也

一 七情動血 一

大怒則形氣絕而血鬱於上使人薄厥, 怒則氣

逆甚則區血怒氣逆甚區血暴단内逆肝肺相搏則血溢鼻口但怒氣致血證暴甚故經曰抑怒以全陰者是也否則五志之火動甚火載血上錯經妄行宜用保明生地黄散

— 内傷失血 —

靈樞曰卒然多食飲則腸滿起居不節用力過度則陽絡脈傷陽絡脈傷則血外溢血外溢衄衄血陰絡脈傷則血内溢血内溢則後血

— 畜血 —

畜血則瘀血積畜也

傷寒熱病身黃尿黑如狂喜忘者爲畜血也

12. 辨證奇聞

\* 婦人則經閉不行男子則口乾唇燥人以爲肝血之妄行也

誰知是腎中火動乎夫腎中之火相火也

13. 漢方秘錄

\* 血爲氣之配也氣行則血行氣上則血上又曰血譬水氣譬風風行水上有氣血之像矣

14. 臟腑辨證論治

\* 血瘀證：血液의 運行이 障碍를 받아서 局部의 脈管 또는 臟腑中에 瘀滯되거나 脈管을 벗어난 어떤 部位에 血液이 瘀滯되는 것을 가리킨다.

— 主症；瘀血局部刺痛，固定不利，或有腫塊，出血，紫紺，肌膚甲錯，舌紫或有瘀斑，脈細澀

血瘀의 部位에 따라서 나타나 는 症狀도 各異하다. 즉 心血이 瘀滯되면 心痛, 胸悶, 口唇青紫하고 肺血이 瘀滯되면 胸悶,

咯血하고 肝血이 瘀滯되면 脇痛 비塊 하고 胃脘에 瘀血이 있으면 嘔血, 經血하고 胞宮에 瘀血이 있으면 小腹痛, 月經不調, 經痛, 經閉하고 經血이 紫黑色을 띠고 塊가 있으며 崩漏症狀이 나타날 뿐 아니라 局部의 瘀血로 인하여 腫塊가 形成되면 靑紫色을 띄게 된다.

15. 東洋醫學 大辭典

\* 畜血；— 血液凝結不行也

— 病人胸滿脣痿舌青口乾但欲漱水不慾嚥無寒熱脈微大來遲腹不滿其人言 我滿爲有瘀血

— 病者有熱上煩滿口乾燥而渴其脈反無熱此爲陰伏是瘀血也

16. 天真處方 解說

\* 血瘀；鬱血狀態에 相當한다.

微小循環障碍, 血液 레올로지의 異常이나 流體力學的 異常, 組織의 增殖 또는 變性等이 關聯된다. 瘀血, 血滯라고도 불리며 病理的인 產物로 생각하고 있다. 外傷, 炎症, 手術, 出產, 月經異常, 自律神經 失調, 免疫異常, 心血管 異常, 寒冷 등이 原因으로 發生하며 이것이 새로운 病因으로 되어 여러 疾病들을 發生시키기때문에 血瘀가 關聯하는 病態는 대단히 많고 또 血瘀를 改善함으로써 많은 疾患을 緩解시킬 수 있다.

血瘀의 主된 症候는 甚한 固

定性的 疼痛 靜脈의 鬱血 狀態 (小血管의 擴張 靜脈의 怒腸 粘膜이나 皮膚의 暗紫色) 反復 되는 暗色の 出血, 種類等이다. 舌質은 暗紅, 紫色, 혹은 瘀斑 이나 瘀點이 보이며 脈은 澁하 다.

또 瘀血로하여금 營養障害가 생기면 血虛가 나타나고 血管 運動 神經의 失調가 일어나면 氣滯가 發生한다.

이와는 반대로 氣滯로 因하여 血管運動이 失調되면 血瘀가 發生하는 따위로 氣滯血瘀, 血虛血瘀의 狀態도 흔히 보게 된 다.

靜脈鬱血의 改善, 抗鬱血, 鎮痛, 血腫의 吸收等 效果를 받는 活血化瘀藥을 主로하여 狀態에 따라서는 氣滯로 因한 瘀血이면 理氣藥, 血虛에는 補血藥, 寒證 에는 祛寒藥, 熱證에는 清熱藥 을 加하여 구성된다.

\* 血瘀란 基本的으로는 靜脈系의 鬱血症 候群으로 생각하지만 近年의 研究結果 로 各種 病理와의 關聯性이 밝혀졌다.

主로 Hemorheological한 異常으로 微小循環障害(血流的 緩慢化나 停滯 血管內의 혈소관이나 血球의 凝集과 閉塞, 血管外로의 溢血이나 出血, 血管痙攣等) 血液 레올로지 異常(血液濃度, 血漿比 粘度, 凝固能等의 上昇)流體力學的 異常 (心驅血能의 減弱, 末梢血管 抵抗의 增大, 血栓等) 보인다.

또 外傷性 炎症性에 의한 組織안의

血液貯溜 或은 骨盤內鬱血이나 血腫 寒冷刺戟에 依한 血管收縮에 따른 血流停溜, 血管運動神經의 失調, 免疫異常 (특히 自己免役의 異常)脂質代謝나 結合纖大事의 異常 等이 關與한다.

血瘀의 狀況으로 發生하는 疼痛은 漢醫學의으로 “不通則痛”한다는 것으로 精脈系의 鬱血로 因한 組織의 緊張性 疼痛이나 Anoxia, 營養不足, 代謝異常等 으로 생기는 疼痛으로 생각된다. \* 明 詠

心驅血能이 떨어져서 筋肉運動에 의 한 補助펌프作用이 없어지는 夜間에 甚해지는 傾向이 있다. 四肢나 驅幹의 疼痛도 運動에 依하여 조금은 輕減하 지만 過度하게 움직이면 相對的인 鬱血增加가 원할치 못하여 도리어 疼痛이 甚해진다. 出血은 微小血管의 閉塞이나 이에 따르는 血管 透過性的 增大, 局所 鬱血로 생기고 靜脈性的 出血이기때문 에 暗色을 띠 때가 많으며 小血管의 擴張이나 거미상血管도 外觀像으로는 紫色을 띠다.

腫瘤는 器官內의 鬱血이나 出血, 免疫複合體의 沈着, 結合纖代謝의 障礙가 原因이 되어 생긴다고 생각된다.

이밖에도 鬱血이나 組織의 營養不良 에 의한 외견적 症候라든지 腦의 循環 代謝의 障害, 或은 自律神經系의 失調에 依한 것으로 생각되는 多樣한 症候가 나타난다.

月經異常이나 不定性器出血에 관해서 는 骨盤안의 鬱血, 子宮이나 附屬器에의 循環不全과 營養障害, 卵巢의 癒着이나 膜의 肥厚에 依한 메트로파티 子宮筋腫,

骨盤內 炎症이나 血腫이 原因이 된다고 생각된다.

血瘀에는 月經血中에 暗色の 凝血塊가 섞일때도 많은데 主로 血液凝固能의 增大에서 오는 現狀이다. 이밖에 重要한 것은 血瘀로 말미암아 組織의 營養이나 代謝가 障害되면 血虛가 생기게 되고 自律神經系의 機能이 障害가 되면 氣滯가 發生한다.

이와는 反對로 自律神經系 特히 血管運動의 失調로 血瘀를 일으킨다는데서 血瘀에는 氣滯나 血虛를 兼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血瘀를 治療하는 活血化瘀藥에는 理氣藥 補血藥이 一般的으로 配合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血瘀를 改善하는 效果를 높이게 된다.

17. 活血化瘀療法臨床實踐

一 瘀血의 概念及病因一

\* 概念

血液循經而行 環流不息 周而復始 濡養全身 若脈道因內外各種致病因素的侵襲影響血液的正常功能和流行 或體內存留離經之血 即可形成瘀血症 如心血瘀阻 可出現胸痺疼痛 肝氣郁久 氣滯血瘀 形成症가 瘀阻脈道 逼血妄行 可致各種出血 血瘀下焦可出現小腹疼痛 婦女則可停經或痛經 血瘀經絡則爲關節痺痛 半身不遂 瘀血內蓄可使久病綿不愈 或產生癲狂性情變化等神經系統或若于精神症狀

\* 病因 \* 迷 副

一 氣：氣滯或氣虛均可致血瘀 血的運行氣來推動 即所謂“血隨氣行 氣爲血帥”氣機不暢或停滯 就會影向 血液運行而致瘀血, <沈氏尊生>說“氣運

乎血血本隨氣以周流 氣凝則血赤凝矣” <奇效良方>說“氣塞不通血壅不流”這指的是氣滯瘀血 臨床上見肝郁氣滯症狀 在慢性肝炎 神經鎮弱神經官能症 婦科等 疾患中多見之又如王清任說“元氣虛弱 必不能達 宇血管 血管無氣 必停留而瘀”指的是氣虛血瘀 中風後遺症 心肌炎後遺症中多見之

一 寒：血遇寒則凝 凝則成瘀 <內經>說“寒邪客于經脈之中 則血流不暢”王清任說“血受寒則凝結成塊”陽虛血必滯

在風濕性關節炎 血栓性脈管炎 婦科痛經 不孕等症中多見之

一 熱：熱邪侵犯 煎熱血液 或熱迫血動而溢出脈外也 可致瘀

<金櫃>說“熱之爲過 血爲之凝滯.....”

臨床上見于 流腦 流行性出血熱 重症肝炎 血液病等疾病中

一 外傷或出血；跌打損傷可致脈絡受損 血不循經溢出脈外而成瘀血

一 久病必有瘀,怪病必有瘀 ；久治不愈的慢性病 經過活血化瘀療法的治療取得了較好的療效

一 其他：特殊病史與瘀血有關 如手術史 月經異常 產後均可致瘀

一 瘀血的診斷一

\* 體症方面

一 舌紫；<諸病源候論>說“夫有瘀血者... 唇萎舌青”

舌面暗紫

鞏膜瘀斑：多爲慢性瘀血症狀

一 口唇及臉下青紫

- 脈像澁, 緊, 沈遲居多 可兼弦脈
- 出血傾向, 紫癍, 靜脈怒張, 蜘蛛疾
- 毛髮變化, 皮膚粗糙, 肢體活動障礙
- 肝脾腫大, 腫瘤, 骨質變形, 癰腫
- 底熱; 有一種不明原因熱
- 精神失常; 〈諸病源候論〉說; “夫有瘀血者 其人喜妄 不欲聞物聲”

\* 症狀方面

- 疼痛不移
- 健忘
- 口干不欲飲
- 少服脹滿

- 臨床應用 -

\* 心血管系痛的影響

- “胸痺” “真心痛”的記載 其表現類似于冠心病, 心絞痛, 心肌梗塞
- 〈內經〉說 “血凝而不流, 脈蓄則心疼”
- 近年常用于治療冠心病的中藥如 丹蔘, 川芎, 紅花, 鬱金 等

\* 血液系統的影響

- 瘀血系指血液循環障礙而治的病變, 故對血液系統病症頗多關係
- 再生障礙性貧血, 缺鐵性貧血, 血友病, 白血病 等 活血化瘀藥物治療 一定 療效

\* 神經系統及精神科的影響

- 〈內經〉說 “血上逆則妄, 血下畜則 狂”
- 〈醫學正傳〉說 “癩爲心血不足”

\* 腫瘤的影響

- 氣血失調, 氣滯血結, 腫大成積, 留而不去所致
- 活血化瘀, 軟堅散結, 攻逐血積等治則

\* 皮膚病的影響

- 色素變化, 感覺異常(痛, 痒, 麻木), 皮膚變質 等 均爲瘀血之症

\* 其他

- 抗感染方面, 增生組織病變之關係, 急腹症之關係, 肝炎之關係, 眼科之關係, 婦科之關係
- 治瘀血藥物及方劑分類表一
- \* 藥物 ; 表-1 參照
- \* 方劑 ; 表-2 參照

18. 漢醫學에서의 瘀血에 對한 概念

- 넓은 意味에서의 瘀血은 血液循環障礙가 모두 瘀血이 되고 좁은 意味로는 死血, 畜血, 惡血 等を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瘀血의 原因 -

- 첫째 - 先天的인 體質과 遺傳的인 原因
- 둘째 - 後天的 打撲 損傷에 依한 内部出血 및 血管障害와 炎症
- 세째 - 傷寒論에서와 같이 發熱性 疾患으로 因한 血液 變性
- 네째 - 産婦人科 領域에서의 月經 異常 및 産後 循環代謝 障礙

- 瘀血의 症狀 -

- 面, 皮膚暗黑色, 脣, 爪甲暗紫色, 皮膚燥裂, 頭重, 上氣, 心悸, 手足冷, 小腹硬滿, 便秘, 紫斑, 出血, 精神神經障礙, 脈沈澁或大遲, 固定的痛症, 高血壓 等

19. 活血祛瘀劑에 관한 文獻의 考察

- 活血祛瘀劑의 適應症을 보면 宮外孕, 月經不調, 經閉, 經痛, 慢成盆腔炎, 輸卵管積水, 子宮肌瘤, 冠心病, 動脈硬化症, 高血壓, 血栓閉塞脈管炎, 過敏性結腸炎, 腸結核, 十二指腸潰瘍, 腦血管意外及其後遺症, 腦震蕩後遺症, 外傷後神經症, 坐骨神經痛, 內耳性眩暈, 神經性偏頭痛,



風濕性關節炎, 骨關節損傷, 慢性腎炎, 腫瘤, 癰瘡 등이 있는데 이는 瘀血이 이와같이 廣範圍한 病理現象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活血祛瘀劑의 適用範圍가 넓음을 알 수 있다.

21. 血證論

- 一切不治之症, 終以不善祛瘀之故
- 凡吐 衄, 不論清, 凝, 鮮, 黑, 總以祛瘀爲先

22. 醫林改錫

- 瘀血是多種病症的致病因素
- 治療之要訣, 在名白氣血
- 血府逐瘀湯, 小腹逐瘀湯 等 二十二種의 處方은 卓越한 活血化瘀의 效果를 나타낸다.

20. 漢方對疑難症之治療

- 血瘀-
- 塊堅硬, 固定不移, 疼痛拒按, 時有潮熱, 面色紫黑, 皮膚乾燥, 月經後期, 瘀甚則面白黑, 肌膚甲錯, 狀如魚鱗, 月經停閉, 脈狀沈澁, 舌色紫黑

\* 參照, 表-1:

- 治瘀血藥物分類表 -

分類	效能	適應症候	常用藥物
活血止血	活血化瘀 止血而不留瘀	因出血而引起的瘀血症 或因血瘀造成的出血	側柏葉, 地榆, 槐花, 血竭 三七根, 牛角, 蒲黃, 礬草 五靈脂, 骨碎補, 大小薊
活血消症	祛除瘀血 消散症積	因瘀血積聚 而成的症瘕腫塊	水蛭, 虻蟲, 瘰癧, 黃藥子 三稜, 莪朮, 山查, 皂角刺 昆布, 海藻, 雄黃, 斑蝥 齊當
活血通絡	流暢血脈 疏通絡脈	因血瘀脈中, 絡脈不通 而引起的疼痛活動不利 感覺異狀	麝香, 全蝎, 蜈蚣, 穿山甲 乳香, 沒藥, 桃仁, 紅花 鬼箭毒, 自然銅, 蘇木
行氣活血	疏肝行氣 活血化瘀	因氣滯血瘀 引起的病症	川芎, 延胡, 鬱金, 姜黃 降香, 月季花, 牛膝
活血行水	活血化瘀 行水消腫	因血瘀阻于經絡而 致的水腫, 腸滿	澤蘭, 益母草, 琥珀 天山藤, 劉奇奴
活血養血	活血化瘀 補養陰血	因血虛而有瘀血的病症 或因瘀血引起的虛勞	谿血藤, 當歸, 丹蔘 鱉甲
涼血活血	清除血熱 消散瘀血	因邪熱侵入榮血 引起的病症	赤芍藥, 牡丹皮, 大黃 犀角

參照：表-2

一治瘀血方劑吳分類表一

分類	方劑名稱	起 源	配 合 藥 物	效能	適應症候
行 氣 逐 瘀	血府逐瘀湯	〈醫林改錯〉	柴胡,桔梗,牛膝,枳殼,生地,赤芍,川芎 當歸,桃仁,紅花,甘草	暢通氣機	胸脇 腕腹脹痛
	益腎活血湯	〈雲南衛生〉	血府逐瘀湯加 韭萊子,蛇床子,紫石英 生地改熟地	活血化瘀	甚至脇下, 少腹結有 症等,一切 氣滯血瘀症
	膈下逐瘀湯	〈醫林改錯〉	當歸,赤芍,紅花,川芎,桃仁,丹皮,延胡 吳靈脂,烏藥,枳殼,香附,甘草		
	復元活血湯	〈醫學發明〉	桃仁,當歸,穿山甲,柴胡,大黃,天花粉		
通 絡 逐 瘀	通竅活血湯	〈醫林改錯〉	桃仁,紅花,赤芍藥,川芎,老葱,生薑, 黃酒,麝香,大棗	疏通絡脈	全身各部 分絡脈瘀 阻,疼痛或 熱等症
	冠心二號方	〈中醫科學院〉	丹蔘,赤芍藥,川芎,紅花,麝香	活血止痛	
	活絡效靈丹	〈哀中參西錄〉	當歸,丹蔘,乳香,沒藥		
清 熱 逐 瘀	犀角地黄湯	〈千金方〉	生地黄,犀角,赤芍藥,牡丹皮,	清血熱	溫熱病, 熱入營血,
	千金經湯	〈千金方〉	葦莖,桃仁,薏苡仁,冬瓜子,		或血瘀化, 熱諸症
	清宜瘀熱湯	〈通俗傷寒論〉	旋覆花,猩猩,葱管,蘆根,枇杷,	畜瘀熱	
	犀澤湯	〈雲南衛生〉	犀角,澤蘭,敗醬草,對座草,老物大		
散 寒 逐 瘀	生化湯	〈傳青主婦科〉	川芎,桃仁,當歸,炒生薑,甘草,	祛除寒邪	寒邪伏于 血分,
	少腹逐瘀湯	〈醫林改錯〉	當歸,赤芍,川芎,延胡,沒藥,蒲黃, 五靈脂,小茴香,官桂,炒生薑	活血化瘀	血瘀不通 諸症
	化瘀贊育湯	〈雲南衛生〉	少腹逐瘀湯加紫石英		
	溫經湯	〈金櫃要略〉	當歸,赤芍藥,川芎,牡丹皮,人蔘,阿膠 麥門冬,吳茱萸,桂枝,半夏,生薑		
軟 堅 逐 瘀	大黃疔蟲丸	〈金櫃要略〉	水蛭,虵蟲,干漆,黃芩,地黃,芍藥, 甘草,大黃,桃仁,杏仁,	消除症積	腕腹等 部位有症 積包塊, 按之有形 諸症
	人蔘鱉甲煎丸	〈金櫃要略〉	鱉甲,鼠婦,蜂房,檳榔,大黃,赤硝, 桃仁,丹皮,柴胡,厚朴,射干,紫葳,阿膠 半夏,石葦,瞿麥,生薑,黃芩,人蔘		
	桂枝茯苓丸	〈金櫃要略〉	桃仁,丹皮,芍藥,桂枝,茯苓		
攻 下 逐 瘀	大黃牡丹皮湯	〈金櫃要略〉	牡丹皮,桃仁,大黃,芒硝,冬瓜子,	攻逐通便	瘀血結于 腸胃,小腹 硬痛諸症
	桃核承氣湯	〈傷寒論〉	桃仁,大黃,甘草,芒硝		
	抵當湯(丸)	〈傷寒論〉	水蛭,虵蟲,桃仁,大黃	排瘀下行	

利 水 逐 瘀	益腎湯  桃仁控涎湯	〈山西城中醫〉  〈丹谿心法〉	丹蔘,當歸,川芎,赤芍,紅花,桃仁,茅根 益母草,金銀花,板蘭根,紫花地丁 桃仁,甘遂,大戟,白芥子,	逐瘀血 化痰除濕 水飲	濕痰瘀塞 經絡,水腫 諸症
扶 正 逐 瘀	補陰還五湯	〈醫林改錯〉 〈驗方新編〉 〈雲南衛生〉	黃芪,當歸,赤芍,川芎,桃仁,紅花,地龍 地龍,玄蔘,當歸,金銀花,甘草 唐蔘,黃芪,葛根,川芎,丹蔘,赤芍,山查 石菖蒲,決明子,降香	扶正達邪  去瘀生新	患病日久 正氣不足, 不行氣血, 血瘀宜絡

#### IV. 考 察

瘀血은 內經時代以後 그 概念이 形成되어 왔으며 “瘀血”二字는 金櫃要略에서 〈驚悸吐衄下血 胸滿瘀血病〉篇中에 收錄되어짐을 볼 수 있다. 內經, 傷寒時代를 지나며 人體內의 여러 疾病을 發生시키는 하나의 要因및 症狀으로 認識이 定立되어 왔으며 清代의 唐容川과 王清任에 依해서 病因病理 症狀및 治療에 對한 具體的인 理論이 確立 되었다고 思料된다.

王은 그의 著書 〈醫林改錯〉에서 瘀血이 많은 疾患을 誘發하는 要因이 된다고 하였으며 實際로 少腹逐瘀湯을 비롯한 二十二種의 活血化瘀 治方은 臨床에서 卓越한 效果를 보인다고 指摘하고 있으며, 〈血證論〉의 著者 唐은 一切不治之症은 瘀血을 改善지 못한 緣故이라고 主張하였다.

이러한 瘀血은 넓은 意味에서는 血液循環 障礙로 因한 모든 病理的 現狀을 指稱하는 것이고 좁은 意味로는 蓄血(張仲景稱) 惡血, 死血(朱丹係稱), 留血(巢元方稱) 등을 意味한다고 보여진다.

流體力學的 異常으로 血液의 움직임이 緩慢하여지거나 血液成分 自體의 變性으로 因

하였거나 外部의 打撲으로 因하였거나 靜脈系內의 鬱血性症候群이 發生하여서 誘發되는 症狀은 상당히 多樣하면서 또한 그 特徵을 갖고 있으며, 誘發되는 疾患 역시 多樣하며 人體의 各 分野에 걸쳐 연관 關係가 있음을 볼 수 있다.

“血陰氣行, 氣爲血帥…” “氣塞不通, 血壅不流…” 〈奇效良方〉하였고 “寒邪客於經脈之中, 則血流不暢…” 하였으며 “熱之爲過, 血爲之凝滯…” 〈金櫃要略〉 “血受熱則煎熟成塊…” 〈王清任〉하였고 “人有墮墜, 惡血留內…” 〈內經〉하였으니 瘀血에 原因이 氣, 寒, 熱, 外傷임을 알 수 있고 그의 婦人科 疾患에서 月經異常이나 產後에서 또한 오래된 疾患에서 炎症이나 浮腫, 塊死, 硬化, 糜爛 등에서 瘀血이 生길 수 있다고 보여진다.

氣滯로 因한 瘀血性 疾患에는 中風後遺症, 心筋炎, 氣虛血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고, 寒으로 因한 瘀血性 疾患은 風濕性關節炎, 血栓性脈管炎, 婦人科痛經, 不孕 등에서 多見하며 熱로 因한 瘀血性 疾患은 流行性出血熱, 重症肝炎, 血液病 등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sup>17)</sup>

瘀血은 또한 瘀血로 因하여 二次的 疾病이 發生되기도 한다고 하였으니 胃腸疾患, 便秘,

動脈硬化, 中風, 高血壓, 關節痛, 腰痛, 神經痛, 更年期障礙, 精神神經障礙, 各種 婦人病 等이다.<sup>18)</sup>

血行循環障礙가 發하면서 痛症이 오고(不通則痛의 理致) 痛處가 固定되어있게되며 組織및 一部 免疫系 反應에서 微熱이 生하게 되며 “夫有瘀血者…唇萎舌青”〈諸病源侯論〉 “其人喜急者, 必有蓄血也”〈傷寒論〉 하였으니 瘀血의 主要 特徵의 症狀은 舌, 口脣, 眼瞼 等の 靑紫色의 瘀斑, 疼痛不移, 微熱, 精神失常, 脈澁或大遲, 毛髮變化, 面 皮膚暗黑色, 唇 爪甲 暗紫色, 手足冷, 出血傾向, 肝脾腫大, 小腹硬滿, 便秘, 頭重, 上氣, 心悸, 月經不順, 月經閉, 口乾不慾飲 等を 볼 수 있다.<sup>2,3,4,5,6,7,8,9,10,11,12,13,14,15,16,17,18,20)</sup>

瘀血의 治法의 基本은 活血化瘀이며 治方은 祛瘀血藥物(表-1)에 治療方劑(表-2)를 基本으로 하여 他原因을 辨證하여 理氣之劑, 補血之劑, 祛寒之劑, 清熱之劑 等を 配合하여 處方構成에 臨해온 것을 볼 수 있다.<sup>16,18,19)</sup>

또한 人體內의 많은 疾患들이 瘀血과 有關함을 볼 수 있으니 瘀血頭痛, 瘀血齒痛, 瘀血流注, 瘀血發黃, 瘀血腹痛, 瘀血疝, 瘀血腫, 瘀血腰痛, 瘀血脇痛, 瘀血胃脘痛, 瘀血月經痛, 瘀血崩漏, 瘀血不妊, 瘀血胎黃, 瘀血咳, 瘀血月經過少, 瘀血月經後期, 瘀血胸痛, 瘀血經閉 等이다.<sup>10)</sup>

이들 疾患도 活血化瘀之劑로 治療하여 좋은 效果를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 疾病治療에 더욱 發展이 있기를 期待한다.

## V. 結論

瘀血에 관한 文獻을 調査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瘀血은 血液循環障害로 因한 血流停滯의 諸症狀의 病變으로 볼 수 있다.
2. 瘀血의 症狀은, 氣滯, 寒, 熱, 外傷, 打撲, 月經異常, 產後, 手術, 등으로 올 수 있다.
3. 瘀血의 症狀은, 疼痛不移, 面 皮暗黑色, 唇 爪甲暗紫色, 口乾, 手足冷 紫斑(瘀血性斑點)을 舌 口唇 眼膜 等に 隨伴한다. 脈 澁或緊或遲, 原因不明熱 隨伴, 出血傾向, 小腹硬滿, 肝脾腫大, 便秘, 頭重, 上氣, 心悸, 月經不順, 月經閉, 精神失常招來 等이다.
4. 瘀血의 治法은 活血化瘀이며, 瘀血의 治方은 表-2를 基本으로하여 辨證에 차른 理氣之劑, 補血之劑, 祛寒之劑, 清熱之劑 等を 配合하여 處方構成에 臨해온 것을 볼 수 있었다.

## 參考文獻

1. 梁遠通：皇帝內經類析 p156~157 中國內蒙古人民出版社 1985
2. 張仲景：傷寒論 p127, p208 日本, 東京 中國韓方(株)
3. 張仲景：金樞要略 p300, p299, p400, p395, p376 日本, 中國漢方
4. 林風琴：類證治裁 p468 臺北 施風出版社 1986
5. 崔虎錫外：漢方臨床入門 p158~159 서울 成轉社 1985
6. 李 挺：醫學入門 外集券一 p329, 外集券二 p151 서울 大成文化社 p1987

7. 蔡仁植：漢方臨床學(辨證施治) p206 서울 大成文化社 1987
8. 李起男外：漢方消化器內科學 p76~77 裡里 서울공판사 1894
9. 黃元御：黃氏醫書苑堂 p46~47 서울 書苑堂 1983
10. 김동일의：東醫學辭典 p1084~1085 서울 驪江出版社 1989
11. 許 浚：東醫寶鑑 p106~107 서울 南山堂 1980
12. 錢鏡湖：辨證奇聞 p199 臺北 甘地出版社 1982
13. 李璟模：漢方祕錄 p292 水原 성진出版社 1983
14. 金完熙外：臟腑辨證論治 p59 서울 成轉社 1987
15. 謝 觀：東洋醫學大辭典 p887, p961 서울 高文社 1980
16. 李常仁外：天真處方解說 p126~127 서울 成轉社 1987
17. 諺德성：活血化瘀療法臨床實踐 p3~p43 中國 雲南出版社 1980
18. 康舜洙：韓醫學에서의 瘀血에 對한 概念(方濟學會誌, 創刊號) 1990
19. 姜惠永：活血祛瘀濟에 관한 文獻的 考察(方濟學會誌, 第二號) 1991
20. 許鴻源：漢方對疑難症之治療 第四集 p19 臺北 新醫藥出版社 臺北71年
21. 唐容川：血證論 p1199 서울 東南出版社 1984
22. 王清任：醫林改錯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75